

2014년 5월 12일(월요일)

월요일 아침 진동벨소리 때문에 눈을 떴다. 우리 집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윗집에서 울리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니 다행히 비는 그쳤다. 신문을 보고 밴드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은 청주에서 책임감리원 회의가 있는 날이라 서둘러 아침을 먹었다. 7시 30분에 안양을 출발하여 9시 40분에 청주에 도착했다. 유료주차장이 만차여서 길가에 차를 주차하였는데 불안한 생각이 들어 유료주차장 아저씨에게 주차해도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은 주차단속 안한다고 했다. 다행이었다.

청주 회의실에는 벌써 많은 단장님들이 도착해 있었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회의가 진행됐다. 중간에 휴식시간에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니 다들 세월호 참사 때문에 건설현장에도 안전점검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12시부터 낙지마당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메뉴는 낙지볶음이었었는데 맵기는 했지만 알싸한 맛이 제법 맛있었다.

식사 후 서울로 향했다. 내 차에는 다른 부서 임원 세분이 더 탔다. 우리 부서에 근무하시는 부사장님 장인상 조문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가는 도중에도 이야기의 화제는 단연 세월호였고 오늘 아침에 발생한 아산 오피스텔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2시간을 달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평일 낮이라 한가했다. 최근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부사장님은 교인들이 많이 와줘서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사모님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어 4일장을 치루는 내내 교회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다고 했다.

부사장님을 위로하고 사무실이 있는 안양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벌써 오후 4시가 되었다.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 정형외과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 얼음찜질과 전기치료를 하고 나니 한결 통증이 덜했다. 사무실에 오니 직원들도 부사장님 조문을 가고 없었다. '든 사람 자린 몰라도 난사람 자린 표가 난다'더니 텅 빈 사무실이 쓸쓸해 보여 사진을 찍었다.



'메기의 추억속으로~' 라는 중학교 밴드에 들어갔다. 내가 게시판에 올린 '남자, 여자의 3가지 모습'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중이었다. 남자의 결혼 전 준수한 모습, 결혼 후 많이 망가진 모습, 이혼 후 알거지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밴드사진과 댓글을 올려본다.



2014. 5. 12. 오후 2:31 69 읽음

오후에도 웃고 일합시다.

남자와 여자의 3가지 모습 이거 완전 대박이네요^^

★여자의 모습★



【결혼 전 천사같은 모습】



【결혼 후 독이 오른 모습】



【이혼 후 고고해진 모습】

★남자의 모습★



【결혼 전 준수한 모습】



【결혼 후 많이 망가진 모습】



【이혼 후 알거지 모습】

★밴드 댓글★



나도 나중에 저런 모습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에 웃음보다는 사회현실이 두렵다. 남자들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 뉴스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피곤한 하루(안양-청주-서울-안양)를 마무리 했다.